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5일 목요일 음 12월 18일 (10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20%
30%	성 산	10%
30%	고 산	10%
3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3/11℃
모레	흐리고 눈	0/6℃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0℃, 낮 최고기온은 14~17℃로 예상된다. 오늘 온화하겠으나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다.

	해뜸 07:28 해짐 18:08		달뜸 21:42 달짐 09:14
물때	만조 00:29 12:58		간조 07:00 19:35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일본 통일교 해산, 내달 4일 판가름 전망

고등법원 항소심 결정 주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본부. 연합뉴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해산명령 효력 발생 여부가 내달 4일 가려진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내달 4일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에 따른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작년 3월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가정연합은 즉시 항고를 청구했다.

교도통신은 "고등재판소가 지방재판소 결정을 지지하면 (해산 명령)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전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제주 성곽, 삶의 경계와 저항의 궤적

양 상 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우리는 구도심의 빌딩 사이로 드문드문 속살을 드러낸 제주성(濟州城)의 흔적을 마주한다. 제주 성곽은 단순한 군사 시설을 넘어, 거친 파도와 외세의 침탈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려 했던 제주인의 삶의 경계이자 저항의 궤적이다.

제주읍성을 비롯한 성곽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숙종 10년(1105년) 축성 기록을 시작으로 조선 시대를 거치며 확장과 보수가 반복됐다.

제주가 '성(城)의 나라'로 불릴 만큼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남해의 요충지였던 제주는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에 노출됐고,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별개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다. 척박한 땅에서 어렵게 일군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제주 사람들은 기꺼이 무거운 돌을 날라 성벽을 쌓아 올렸다.

1000년을 버텨온 제주 성곽이 본격적으로 허물어진 것은 일제강점기다. 1920년대 중반, 일제는 산지항(현재의 제주항) 포구 개발과 항만공사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제주읍성을 조직적으로 훼철(毁撤)하기 시작했다. 성벽은 뜯겨나가 바다를 메우는 골재가 됐다. 이는 제주의 상징적 방어막을 해체해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다.

강탈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잔존 성곽들은 이제 세월의 무게와 관리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최근 제주성지 남동쪽 끝자락인 제이각(制夷閣) 인근 축대가 힘없이 붕괴돼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봤다. 기록적인 폭우와 기후 변화 등의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관심이 멀어진 탓이기도 하다.

요즘 남문로터리 주변 한짓골 입구에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지며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곳은 과거 제주성의 관문인 정원루(定遠樓)가 서 있던 자리다. 현재 구도심 개발과 복원 사이에서 관의 행정이 고심을 거듭하며 주춤거리고 있으나,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학술적 견해와 복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상존하는 만큼, 물리적 재현에만 매몰되기보다 이곳을 역사적 장소로서 손색없게 가꿔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도시의 역사성은 역사적 공간이 제대로 조성됐을 때 공고히 지켜지고,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문화의 생명력도 왕성히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곽은 과거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성벽을 지탱하던 주변 지반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돌의 붕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역사의식의 붕괴다. 제주 성곽은 척박함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제주 정신의 골격이다. 지키고자 했던 삶의 경계가 선명할 때, 제주는 비로소 제주일 수 있다. 그래야 제주인의 정신을 담은 성곽은 영원한 제주의 심장으로 남을 것이다.

열린마당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송 명 아
제주도 소상공인정책팀장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 준비를 하든가 여행이나 친지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기회가 된다. 제사 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마련하고, 가족·친지와의 만남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해 주길 권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의 실적 집계는 5억원엔 미치지 못했지만 양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전개한 캠페인과 농수축협·은행·학교·민간단체 등의 참여 실적을 더하면 작년 한 해 공공 주도의 전통시장 소비실적은 그보다 더 많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결과이지만 올해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설 연휴가 있는 2월은 '전통시장 이용 특별운영기간'으로 지정해 도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2회 시장을 이용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전통시장·상점가 토닥토닥'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부서 단위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선물을 나누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샤라웃(shout out)' 챌린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사·칭찬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올해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의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는 따뜻한 소비를 함께 실천해 주기 바란다. 공직자부터 도민까지 모두가 함께할 때 지역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

스토리텔링으로 전하는 봉사

허 숙 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스토리텔링 강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은 과거 '시간이 남을 때 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체적으로 나누며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스토리텔링 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자원봉사 참여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봉사활동은 봉사의 의미를 보다 쉽고 공감할 수 있게 전달함으로써 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활동은 자원봉사 경험이 풍부한 봉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자원봉사 입문자에게도 자원봉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 대상과 일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달리 구성하는 교육 방식 또한 일반적인 봉사활동과는 다른 특별함을 지닌다.

이와 같은 교육형 봉사활동은 봉사가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이타심에서 출발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긴 호흡이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봉사자 개개인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맞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야기로 전하는 봉사는 나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수료
산학협력교수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